

지역 소식통



고창군, 판소리연수·체험  
신재효판소리공원 개관

고창군이 14일 판소리연수·체험시설은 '신재효판소리공원'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삼덕읍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경과보고와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식,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김지선(고창출신 개그우먼)과 정준하 개그맨이 맡았다. 김일규 신영희, 왕기석 명창과 전주대사습청, 가수 유지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신재효판소리공원은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총사업비 32억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한옥 3개동, 연면적 614㎡ 규모로 조성됐다. 전세대가 함께하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한옥 3개동은 판소리 교육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정읍 소재 연구  
기관장 정책협의회 개최

정읍시는 15일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장의 소통 강화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기관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관계공무원,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2008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의 개원을 시작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소,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초연구센터, (재)농축산유통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의 연이은 개원으로 정읍이 미래첨단 과학도시로의 발돋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

정읍시, 23억원 투입 동신초 앞 등 시내·외권 7개소... 인도 불편 해소 즉각 대처키로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정읍 실현을 목표로 보행 친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며 "올해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2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보면 시내권은 5개소로 15억원, 시외권은 2개소로 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또 시민 통행량이 많은 시가지 인도 불편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와 개선을 위한 3억원도 확보했다.

시내권을 보면 △호남고사거리 ~ 유창아파트 800m의 보도블럭을 교체 자전거도로 구간은 황토로 포장한다. 또 △유창차 아파트 앞 인도 100m를 황토로 포장하고 △동신초등학교 앞 인도 340m는 보도블럭 교체와 함께 아스콘 및 도막(도료를 도포하여 형성하는 피막)으로 포장한다. △초산동 6동 인도 310m는 보도블럭으로 재포장하며 △천변로 연지교 ~ 죽림교 인도 1km는 황토로 포장한다. 시외권 사업으로는 북면 북면 우체

국에서 정읍한우에 이르는 400m와 입암면 대흥초등학교 통학로 180m는 정비하고 황토로 포장한다. 시는 이와 함께 "통행량이 많은 시내권 인도의 경우 수시로 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시로 확인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억원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의 보도 정비와 함께 친환경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인도를 황토로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역주민 건강하고 행복하길"

정읍시 보건소, 한의약건강사업 건강하자 고(go) 365교실 1기 성료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2월부터 5월까지 12주 기간 동안 건강증진을 원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건강하자 고(go) 365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건강하자 고(go) 365교실 1기는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수준 향상을위하여 기체조, 건강체조, 정서지원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기체조·건강체조 각 12회기, 정서지원교실 6회기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수업으로 재개된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 한의사의 맞춤형 1:1 한의약 상담과 진료, 기혈순환 기체조, 근골격계 통증완화를 위

한 건강체조교실, 우울감 감소와 심신 이완에 도움이 되는 정서지원 교실, 참여자 맞춤형 운동처방 및 영양교육 또한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건강하자 고(go) 365교실 프로그램 2기가 5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12주간 운영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공공앱 '위메프오'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되도록"

이학수 정읍시장, 농촌일손돕기·장마철 대비 배수구 등 사전대비 '철저' 당부도

이학수 시장이 정읍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를 적극 알리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읍시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메프오'는 지난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가맹점 중개수수료율이 2%로, 6~15%대에 이르는 민간 배달앱보



다 저렴하며 가입비 없이 입점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할 때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소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을 결제 수단과 연계 10% 할인 혜택을 받고 이달 한 달 첫 구매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 2번째 구매자에게는 4000원 환급 혜택, 또 주말 주문 시에는 배달료 무료 혜택도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장점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은 시민의 앱 사용과 지역 업소들의 가맹점 참여를 늘려서 위메프오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축성 606주년 '제3회 무장읍성 축제' 성황리 열려

600년 역사를 품은 제3회 무장읍성 축제가 15일 무장읍성 일원에서 열렸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은 △ 성황제와 식전공연 △ 농악 길놀이 퍼레이드 △ 무장읍성 복원 동영상 상영 △ 합벌식, 나비날리기 △ 조선군 복식체험, 대북치기 체험, 어르신 족욕체험 △ 공연프로그램(연예인 초청공연,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 시음행사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대되는 퍼포먼스로 준비된 나비날리기는 1417년 당시 축성에 참여한 고을 백성들의 고단함과 영혼들을 위로하고 무장읍성의 영구보존을 선조들에게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서 축성 606주년을 기념하여 나비 606마리를 날렸다. 무장읍성 복원이 추진되면서 비적진



천뢰 11점이 발굴되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있으며,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다가 복원된 연지에는 100년을 땅속에 있던 씨앗이 발아하여 다시 피어난 연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연꽃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무장읍성 축제는 무장면민들로 구성된 (사)고창무장읍성보존회를 중

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사)무장읍성보존회 김기욱 회장은 "지역민들이 준비한 축제라서 더욱 빛났다"며 "무장읍성의 역사성과 축제의 독창성을 지역민들과 함께 살려 앞으로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 도로명 부여

부안군은 주소정보위원회에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에 대한 도로명 신규 부여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정석 위원장(부안군 부군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지에 대한 도로명(잼버리로 포함 16건)을 신규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신규 매립지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의 부안군으로 결정된 행정안전부 공고(제 2023-56호, 2023.4.3.)에 따른 것으로는 8월 1일부터 12월까지 12일간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기간에 사용할 도로명을 신규 부여함으로써,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배송을 가능하게 하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운영본부)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등을 통해 대회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주소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명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DB 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잼버리 부지에 도로명판을 30개 설치해 스카우트 대원 및 관계자들이 대회 기간에 원하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선 민원과장은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에 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판 설치를 신속히 완료해 잼버리 대회 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익진 기자

# 고창군·베리앤바이오, 제1회 식품산업포럼 개최

대한민국 푸드테크산업의 선구자인 이기원 교수(한국푸드테크협회장, 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가 고창군을 찾아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고창까지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15일 오후 동리국민당에서 이기원 교수 초청 '800조 푸드테크 시장과 고창 식품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고창군 식품산업 포럼을 열었다. 이기원 교수는 서울대 푸드테크학과 학과장이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 겸을 역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푸드테크 분야 국내 최고 석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소속 농업·농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푸드테크란, 식품(food)에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 등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미래 첨단 농식품기술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월, 고창군과 연구소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푸드테크 기반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심덕섭 이사장은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발굴·육성해 향후 푸드테크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김치산업 진출, 대체육 및 고품질의 단백질 소재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